

읽기3. 추론하기_(3)글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

1. 차시개요

학습단계	개념학습	연습문제	상황학습	적용문제
쪽수	40~44	45~49	50	51~55
학습내용	1. 영상-공익광고를 보고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 2.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알기 - 사진, 표, 구체적인 사례, 그림 등의 단서 활용하기 - 자신의 배경지식 동원하여 글의 구조와 전개 이해하기 3.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문장의 표현 방식이 달라짐을 파악하기 4. 학습 내용 정리	[1~5] ‘21세기 이후의 미래 직업’에 대해 설명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 1. 글의 구조 파악하기 (끌어넣기) 2. 문장 속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선다형) 3.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선다형) 4. 글쓴이의 목적 파악하기(선택형) 5.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두 글을 비교하며 읽기 (선다형)	상황 : ‘친목 여행 안내문’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기	[1~2] 글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 1. 글쓴이의 의도 고르기(선다형) 2. 관점이 다른 두 글을 읽고 비교하여 고르기(선다형) [3~5] ‘가지 않은 길’이라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 3.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여 고르기(선다형) 4.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글쓴이의 의도를 밝힌 부분 고르기(선다형) 5. 인용문을 활용한 글쓴이의 의도 고르기(선다형)

2. 국어 활동별 학습맵

담화 주제 및 활동	관련 자료
문장의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개념학습3 43쪽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글쓴이의 관점 이해하기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개념학습2 42쪽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연습문제1 45쪽
관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글을 읽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기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연습문제5 49쪽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적용학습2 52쪽

3. 학생 질문별 학습맵

나의 궁금증	관련 자료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글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질까?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개념학습3 43쪽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개념학습2 42쪽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다르면 글의 내용도 달라질까?	읽기/3.추론하기/3차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상황학습 50쪽

<활동지>

읽기3.(3)-상황학습 활용

※ 다음은 직원 친목 여행을 안내하는 안내문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나)가 (가)에 비해 좋은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가) 여름 친목 여행 안내 우리 회사 직원들의 친목과 사내 복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12년 여름 친목 여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 8월 16일(수)~17일(목) 장소 : 강원도 평창 숙박 : 한국호텔 일정 : 16일 오후 2시 회사 정문에 집합하여 출발 평창 도착 7시 17일 오후 5시 평창에서 출발 회사 도착 오후 9시 예정, 해산 비고 : 참가 유무와 회비에 대한 안내는 이후 메신저와 메일로 안내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 △△-△△△-△△△△)에게 문의해 주세요.	(나) 호화 호텔에서 평창 올림픽의 감동을 미리 맛보자! 여름 친목 여행 안내 우리 회사 직원들의 친목과 사내 복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12년 여름 친목 여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창에서 함께 어울려 즐겨 봅시다. 여러분 모두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날짜 : 8월 16일(수)~17일(목)- 지금 당장 스케줄 비워 두기! 장소 : 강원도 평창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 숙박 : 한국호텔(국내 최고의 호텔! 특별 모듬 회 제공! 이번 기회에 한국호텔에서의 특별한 밤을 보내 봅시다.) 일정 : 16일 오후 2시 회사 정문에 집합하여 출발 평창 도착 7시 17일 오후 5시 평창에서 출발 회사 도착 오후 9시 예정, 해산 비고 : 참가 유무와 대금은 이후 메신저와 메일로 안내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 △△-△△△-△△△△)에게 문의해 주세요.
--	---

<보기>

▶안내문을 만들 때 고려할 점

- 장소가 멀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내용만 딱 읽고도 참여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 여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요소와 여행의 일정, 장소 등을 안내하는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한다.

(나) 안내문의 좋은 점

읽기3. (2) 글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파악하기 _ 적용문제 1~5번 활용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1일부로 청구한 컴퓨터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습니다. 처음 청구서를 발행하고 나서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은 우리 회사가 결산을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업무 진행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알아보시고 몇 월 며칠에 지급이 가능한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나카지마 다카시(2007), 성공하는 글쓰기 전략, 산지니, 164쪽 각색)

- ① 컴퓨터 구매를 설득함.
- ② 컴퓨터 대금 할인을 요청함.
- ③ 컴퓨터 대금의 지급을 독촉함.
- ④ 컴퓨터 대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함.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 이 글과 <보기>를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1일부로 청구한 컴퓨터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습니다. 처음 청구서를 발행하고 나서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은 우리 회사가 결산을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업무 진행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알아보시고 몇 월 며칠에 지급이 가능한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나카지마 다카시(2007), 성공하는 글쓰기 전략, 산지니, 164쪽 각색)

보기 이번 7월 1일부로 청구 신청한 컴퓨터 대금을 2개월이 나 지났는데 아직 입금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는 9월은 당사가 결산을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고, 경리상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즉시 지급해 주십시오.

- ① <보기>는 완곡하게 표현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 ② <보기>가 위 글보다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 ③ <보기>보다 왼쪽 글이 독촉의 어감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 ④ <보기>는 독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3~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지 않은 길

(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떤 길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또 잘한 선택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에 쉽게 결정짓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다.

(나)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에서 노란 숲 속에 나 있는 두 갈래 길을 다 가 보지 못한 아쉬움을 노래했다. 두 길 중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다) 먼 훗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금 청소년들 앞에는 수만 갈래의 길이 놓여 있고, 그중 한 길을 선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때 우리 청소년들은 꼭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기도 한다.

(라) 그러나 정말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것일까? 또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일까? 여기에는 '가지 않은 길'을 되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마음속에 간직한 불씨를 끄집어내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마)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낸 강봉수 변호사는 최근 수억 연봉의 대형 로펌 고문 자리를 버리고, 66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가 보지 못한 물리학도의 길을 걷기 위해, 윈스턴 처칠 역시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난 뒤 '화가'라는 제2의 직업에 몰두했는데 미국의 로키산과 아프리카 별장에 **이젤**을 두고 '이생의 100만 년은 그림을 그리는 데 다 써 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체념** 대신 놀라운 열정과 용기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시리패트 톨자푸르카르 교수는 "노화 방지 기술과 질병 치료법의 발달로, 오는 2030년이 되면 선진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약 100세에 이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균 55~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이 40여 년이나 된다. '제2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사) 지금 청소년 세대는 훗날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프로스트처럼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길을 걸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

(출처: 강보영, 《진학보다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10대의 미래 지도》 60~61쪽)

3.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부분을 고르세요.

- | | | |
|-------|-------|-------|
| ① (가) | ② (나) | ③ (다) |
| ④ (라) | ⑤ (마) | ⑥ (바) |
| ⑦ (사) | | |

4. <보기>에 해당하는 단락을 골라 보세요.

보기 글쓴이: 내 주장의 근거가 되고, 독자들이 주장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황혼기에도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좋겠지?

- | | | |
|-------|-------|-------|
| ① (가) | ② (나) | ③ (다) |
| ④ (라) | ⑤ (마) | ⑥ (바) |
| ⑦ (사) | | |

5. (나)를 인용한 글쓴이의 의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글쓴이의 주장 전개에 연결 고리가 된다.
- ② 비유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 ③ 독자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는 효과가 있다.
- ④ 과학적인 출처와 근거를 내놓아 신뢰성을 높인다.